

IWC 샤프하우젠, 18캐럿 아머 골드® 소재와 옅시디언 컬러 다이얼을 장착한 포르투기저 투르비용 레트로그레이드 크로노그래프 출시

2025년 7월 3일, 샤프하우젠: IWC 샤프하우젠이 포르투기저 투르비용 레트로그레이드 크로노그래프를 출시합니다. 100피스 한정으로 제작되는 이 제품은 플라잉 미닛 투르비용과 레트로그레이드 날짜 디스플레이,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가 결합된 최고급 정밀 시계입니다. 43.5mm의 케이스는 기존 금 합금보다 경도가 훨씬 뛰어난 18캐럿 아머 골드®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15겹에 달하는 투명 래커가 특징인 옅시디언 다이얼은 까다롭고 정밀한 제작 과정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솔리드 골드 로터가 장착된 IWC의 자체 제작 무브먼트, 89900 칼리버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사파이어 글래스 케이스백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IWC 샤프하우젠은 포르투기저 컬렉션에 새로운 시그니처 컬러를 포함하는 최신 디자인 코드를 적용했습니다. 호라이즌 블루, 둔, 옅시디언, 실버문으로 불리는 컬러들은 낮과 밤의 영원한 순환과 끊임없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IWC 샤프하우젠에서는 옅시디언 컬러 다이얼이 특징인 세 가지 컴플리케이션을 갖춘 새로운 모델을 선보입니다.

100피스 한정으로 제작되는 포르투기저 투르비용 레트로그레이드 크로노그래프(Portugieser Tourbillon Rétrograde Chronograph, Ref. IW394009)는 18캐럿 아머 골드®로 섬세하게 제작된 케이스와 푸셔, 크라운이 특징입니다. 이 소재는 미세 구조가 개선되어 기존 금 합금보다 경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옅시디언 컬러 다이얼은 60단계로 구성된 복잡한 공정 과정을 거쳐 제작됩니다. 15겹의 투명 래커가 만들어내는 깊이감은 마치 입체 조형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다이얼은 골드 도금 핸즈와 솔리드 골드 애플리케이션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시계에는 이탈리아 가죽 장인 산토니의 블랙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과 18캐럿 아머 골드® 폴딩 클래스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첨단 플라잉 미닛 투르비용

디자인의 섬세함과 눈을 사로잡는 움직임 덕분에 투르비용은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에서 가장 화려하고 상징적인 컴플리케이션으로 손꼽힙니다. 투르비용은 1분에 한 번씩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작은 케이지 내부에 이스케이프 휠과 팔레트 레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회전은 시계의 진동 시스템에 가해지는 중력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속도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총무게가 0.675g에 불과한 6시 방향의 플라잉 미닛 투르비용은 56개의 개별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르비용 스탑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시계를 완전히 정지시킨 후 시간을 초 단위로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 레버와 이스케이프 휠은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IWC의 독자적인 다이아몬드 쉘® 기술로 코팅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수 코팅은 마찰을 줄이고 무브먼트의 에너지 흐름을 개선하여 최대 68시간의 넉넉한 파워리저브를 확보하게 합니다.

**레트로그레이드 날짜 디스플레이
및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포르투기저 투르비옹 레트로그레이드 크로노그래프에는
플라잉 미닛 투르비옹 외에도 다이얼 9시 방향에
레트로그레이드 날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작은 바늘이 1일에서 31일 사이의 아치형 눈금에서
현재 날짜를 가리킵니다. 월말이 되면 바늘이 다시 시작
위치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컴플리케이션은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이며, 12시 방향의 토털라이저를 통해 경과한
시간과 분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를
사용하면 시간 측정을 매우 빠르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크로노그래프 버튼을 누르면 크로노그래프 바늘이 0으로
초기화되고 동시에 새로운 측정이 시작됩니다.

포르투기저 투르비옹 레트로그레이드 크로노그래프는
총 375개의 개별 부품으로 구성된 매우 정교한 오토매틱
무브먼트인 IWC의 자체 제작 89900 칼리버를 통해
구동됩니다. 제네바 스트라이프와 서큘러 그레이인으로
정교하게 장식된 무브먼트는 사파이어 글래스 케이스백을
통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토매틱 와인딩 시스템의 로터는
솔리드 골드로 제작되었습니다.

포르투기저 투르비옹 레트로그레이드 크로노그래프

레퍼런스 IW 394009

특징

기계식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 다이아몬드 셀® 기술이 적용된 팔레트 레버와 이스케이프 휠 -
6시 방향의 플라잉 해킹 미닛 투르비옹 - 레트로그레이드 날짜 디스플레이 - 시, 분, 초를 표시하는
스톱워치 기능 - 12시 방향의 토털라이저에 시간과 분 동시 표시 - 플라이백 기능 - 18캐럿 골드 로터 -
시스루 사파이어 글래스 케이스백 - 100피스 한정 제작

무브먼트

IWC 자체 제작 칼리버	89900
주파수	28,800 vph/4 Hz
주얼리	42
파워리저브	68시간
와인딩	오토매틱

워치

소재	18캐럿 아머 골드® 케이스, 옅시디언 컬러 다이얼, 골드 도금 핸즈, 솔리드 골드 애플리케이션, 산토니 블랙 앨리게이터 레더 스트랩
글래스	사파이어, 아치형 가장자리, 양면 반사 방지 코팅
수압 저항 기능	3 bar
직경	43.5 mm
두께	15.9 mm

IWC 샤프하우젠

IWC 샤프하우젠은 스위스 북동부에 위치한 샤프하우젠에 기반을 둔 스위스 럭셔리 위치의 선구자로, 포르투기저부터 파일럿 워치 컬렉션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의 컬렉션을 전개하며 엘레강스함은 물론 스포티함까지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1868년, 미국 출신의 엔지니어이자 워치메이커였던 플로렌타인 아리오스토 존스(Florentine Ariosto Jones)에 의해 설립된 IWC는 시계 제작 과정에 뛰어난 기술적 노하우, 훌륭한 장인 정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최첨단의 기술을 접목한 시계를 선보입니다.

150년이 넘는 역사에 걸쳐 IWC는 워치메이킹과 컴플리케이션의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했으며, 독창적인 크로노그래프와 캘린더로 특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티타늄과 세라믹을 처음으로 사용하며 소재 개발을 선도하고 정밀한 기술과 특별한 소재의 시계 케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시계 브랜드의 대표주자인 IWC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투명성, 순환성, 책임의 철칙을 바탕으로 IWC는 세대에 걸쳐 전해질 수 있는 타임피스 가장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생산하기 위해 제작 과정, 유통 과정, 애프터 서비스 등 다방면에서 혁신을 거듭합니다. 또한 IWC는 아동 및 청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글로벌 기관과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포르투기저 투르비옹 레트로그레이드
크로노그래프의 이미지는 press.iwc.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 문의

IWC 샤프하우젠

홍보 부서

이메일 press-iwc@iwc.com

웹사이트 press.iwc.com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iwc.com

Facebook facebook.com/IWCWatches

YouTube youtube.com/iwcwatches

LinkedIn linkedin.com/company/iwc-schaffhausen

Instagram instagram.com/iwcwatches

Pinterest pinterest.com/iwcwatches

#IWCwatches